

<2021년 11월 21일 주일말씀>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

[시대 성경]

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.

잊으면 가치도 없어지느니라. 잊으면 끝이니라.

귀한 것이 무엇이나.

우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. 목적이다. 사랑이다.

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가장 크니라.

그 목적을 이루어 준 자가 지상에서 가장 큰 목적을 이뤄 준 자니라.

[요한계시록 20장 6절]

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

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,

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,

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

[마태복음 22장 37절]

예수께서 이르시되,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

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

-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

“〈전지전능한 나 여호와와 창조 목적〉을 이루게 해 준 자가
‘지상에서 가장 큰일을 해 준 자’ 다.” 하셨습니다.

- 하나님은 〈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준 자〉를
‘자신의 사랑의 대상’ 이 되게 해 주십니다.

그는 ‘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는 자’ 이니,
하나님도 그를 영원토록 사랑해주고 기쁘게 해 주시며
‘황금천국에 살 수 있는 특권’ 을 주십니다.

- 지금 〈이 시대〉는

▶ 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〉을
‘이루고 사는 시대’ 입니다.

▶ 〈요한계시록 20장 6절〉에

“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.” 하신
‘신약의 예언을 이루는 시대’ 입니다.

▶ 다시 말해서,

〈하나님의 창조 목적〉을 이루고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
천 년 동안 삼위를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
‘마지막 천 년 혼인 잔치 역사’ 입니다.

- 그러므로 하나님은

〈이 시대 주〉를 통해 ‘시대 말씀’ 을 주시며,

〈하나님의 창조 목적〉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.

〈그 목적〉을 이루라고,

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주시고, 돕고, 역사해 주십니다.

- 〈하나님의 목적〉을 이루는데도,

〈자기 행실〉에 따라 ‘최고로 이뤄주는 사람’ 이 있고,

‘보통으로 이뤄주는 사람’ 이 있습니다.

- 〈하나님의 목적〉을 ‘최고로’ 이뤄주는 사람에게는

하나님도 그를 ‘최고로’ 대해 주시며,

〈그 사람의 목적〉을 ‘최고로’ 이루게 해 주십니다.

〈하나님의 목적〉을 ‘보통으로’ 이뤄주는 사람에게는

하나님도 그를 ‘보통으로’ 대해 주시며

〈그 사람의 목적〉을 ‘보통으로’ 이루게 하십니다.

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.

- 만일, 섭리인들이

〈하나님의 목적〉을 ‘충만하게, 차고 넘치게’ 이뤄드린다면,

하나님 역시도 〈우리 목적〉을 ‘충만하게’ 이뤄주실 것입니다.

그러나, 우리가 〈하나님의 목적〉을 ‘보통으로’ 이뤄드린다면,

하나님도 그 행한 대로 〈우리 목적〉을 ‘보통으로만’ 이뤄주십니다.

- <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>이
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뤄드리지 않으면,
 <그 목적>은 ‘구약인들’도 이뤄줄 수 없고,
 ‘신약인들’도 이뤄줄 수 없습니다.

<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>이 우리들이니,
 우리만이 ‘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.

-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‘사랑의 본체’ 이십니다.

<우리>는 그 말씀을 듣고,
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이 되어 역사를 이뤄드리는 자들입니다.

- 전능하신 하나님은
 <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자>를
 최고로 사랑해주시고, 축복해 주시며 기뻐하십니다.

<하나님의 목적>을
 ‘몰라서’ 행하지 않거나, ‘알아도’ 행하지 않는 자들은
 ‘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’입니다.

그러므로 하나님은
 그들에게 <말씀>을 주어 ‘다시 행할 기회’를 주기도 하시고,
 때로는 <다른 자들>을 불러서 ‘자신의 목적’을 이루게도 하십니다.

- <기도>는
 - <하나님이 주신 목적>을 ‘최고로’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.

- 또한, <자기 목적>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.

- 우리는 <여러 가지 뜻>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

‘어려움을 해결해 달라.’, 혹은 ‘잘되게 해 달라.’ 기도합니다.

하나님은 <기도에 대한 답>으로

“너희가 <나 여호와와의 목적>을 ‘최고로’ 이뤄주면,

나도 <너희 각자의 소원>을 ‘최고로’ 이루게 해 주고,

<섭리사의 소원>도 ‘최고로’ 이루게 해 주겠다.” 하셨습니다.

- 하나님은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뤄드리면,
<그 목적을 이뤄준 자의 목적>도 이루게 해 주십니다.

즉, 자기가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루어 드리면,

하나님도 <자기 소원과 목적>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.

- 그런데, 하나님은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뤄주기 전에는
<상대의 목적>을 이뤄주지 않으십니다.

<하나님 자신의 목적>도 이뤄주지 않았는데

<상대의 목적>을 먼저 이뤄주면,

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.

그러므로 하나님은

<하나님의 목적>을 정말로, 진실로 이뤄주기 전에는

<상대의 목적>을 절대 이뤄주지 않으십니다.

- <목적을 먼저 이룬 사람>이 ‘주체’가 됩니다.
<그다음에 목적을 이룬 사람>이 ‘대상’이 됩니다.

만일, 하나님이 <상대의 목적>을 먼저 이뤄주면,
상대가 ‘주체이신 하나님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.

- 사람도, 상대가 <자기가 원하는 것>을 안 이뤄줬는데,
<상대의 목적>을 먼저 이뤄준다면,

<목적을 이룬 자>가 ‘주인’이 되고,
<자기>는 ‘목적을 이룬 자의 대상’ 뿐이 안 됩니다.

-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.

<하나님의 목적>을 이뤄주지 않았는데,
사람이 목적을 이뤄달라고 해서 먼저 이뤄주면,

목적을 이룬 <사람>이 ‘주인’이 되고,
<하나님>은 ‘목적을 못 이룬 자’가 됩니다.

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,
<상대의 목적>을 먼저 이루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

- 그러므로 우리는 <기도>로 전심을 다하여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‘최고로’ 이루어 드리고,

<개성의 왕 같은 신부 입장>에서 자기를 다듬고 만들어서
‘삼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’이 되어,

삼위를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,
〈천 년 혼인 잔치 역사〉를 기쁘게 펴나가야 됩니다.

→ 이것이 바로,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〉입니다.

- 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〉을
최고로, 온전하게, 충성으로, 그 마음에 들게 이뤄드리고,

〈삼위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〉을 해 드리며,
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존경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.

→ 〈이 시대〉에 살면서 〈이 목적〉을 행하지 않으면,
가치가 없는 ‘무가치한 자’입니다.

- 〈물건〉도 가치대로 ‘값’이 결정됩니다.

〈가치〉를 모르면 소홀히 하게 되고,
팔아버리게 되고, 멀리하게 됩니다.

〈가치〉를 알면 ‘기쁨거리’, ‘자랑거리’가 되고,
그것으로 ‘즐거움’을 삼게 됩니다.

- 〈하나님의 창조 목적〉을 이뤄드리면,
〈자기 가치〉도 높아지게 됩니다.

누구든지

〈자기 영이 구원받고, 황금천국급으로 살고 있는 자〉는

그 육신이 땅에서 ‘하나님의 축복’ 을 많이 받고 살고,
‘영의 혜택’ 도 많이 받아서 잘되고 형통되어 삽니다.

다시 한번 말하면,
〈하나님의 목적〉을 이뤄드렸으니,
하나님도 〈그 육신이 소원하는 것〉을 이뤄주시고,
‘자기 영’ 도 육신을 도와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 줍니다.

-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,

“누구든지 〈내 목적〉만 이뤄주어라.
그러면 나도 〈네 목적〉을 이뤄주마.” 하셨습니다.

- 모든 인생들은 세상을 살면서,
〈자기 삶의 목적〉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.
그런데도, 〈자기 목적〉을 잘 못 이루고 삽니다.

〈하나님의 목적〉을 먼저 이뤄드리지 않으니,
〈자기 목적〉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
- 〈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〉가 행하시는
〈영원한 사랑의 목적〉을 이뤄드려야,
〈그 육〉도 〈영〉도 크고, 웅장하고, 창대하게,
미련도 없이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.

이 근거로는 선생님을 보면 압니다.

- 선생님은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>을 이뤄드리고,
오직 <삼위>만 ‘마음과 뜻과 목숨’을 다해서 사랑하고
좋아하며 살았습니다.

그랬더니, 오늘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
<선생님의 목적>을 이뤄주셨습니다.

그 축복을 받고,
<하나님의 자연성전>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
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.

-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목적>은

<자신이 창조한 사람들>을
자녀같이, 혹은 애인같이 사랑해준다고만 해서
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

<하나님의 목적>을 ‘하나님 혼자’ 이루려면,
무엇하러 ‘세상’을 창조하고, ‘인간’을 창조하셨겠습니까.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은
<대상 : 창조를 받은 인간>이 이뤄주는 것입니다.

- 사람도 <자기 사랑의 목적>을 ‘홀로’ 이룰 수 없습니다.

<한 남자>가 ‘자기 사랑의 목적’을 이루기 위해,
‘한 여자’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잘되게 해 줘어도,

<여자>가 ‘그 남자의 목적’을 이뤄주지 않으면
<홀로>는 못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>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,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‘홀로’는 못 이루십니다.

- <인간>은 -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
창조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

이 비밀이 크고, 이 말씀이 깊고 깊습니다.

이를 깨닫지 못하면,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.

-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주는 자>가
‘지구상에서 제일 큰 자’입니다.

그런데 <어떤 목적>을 이뤄줬느냐에 따라 ‘급’이 다릅니다.

<하나님의 종이 되는 목적>을 이뤄줬느냐,
<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>을 이뤄줬느냐,
<사랑의 대상이 되는 목적>을 이뤄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

<영상1>

- 모두 <자기 입장>에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

자기가 <결혼할 때>가 됐는데,

어떤 자는 ‘자기 심부름하는 사람’ 이 되어주고,
어떤 자는 자기를 ‘형제’ 같이 대해 주고,
어떤 자는 ‘자기 결혼의 대상’ 이 되어 살아왔습니다.

<어떤 자>가 ‘큰 자’ 겠습니까?

<때에 맞는 목적을 이뤄 준 자>가 큰 자입니다.

- <하나님의 창조 목적>도 아무 때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,
반드시 <시대의 때>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그러므로 <그 시대에 맞는 창조 목적>을 이뤄야 됩니다.

- <이 시대>는 역사적으로 볼 때,
‘마지막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의 때’ 입니다.

하나님은 <이 시대의 목적>을 위해서

<구약 4000년 동안> - ‘종급 역사’ 를 펴 오셨고,

<신약 2000년 동안> - ‘자녀급 역사’ 를 펴 오셨습니다.

- <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약 천 년 역사>는
 - ▶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‘신랑’ 으로 모시고,
 - ▶ <우리>는 ‘신부’ 되어 - <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>으로,
<그 말씀에 순종함>으로,
 - ▶ <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목적>을 이뤄드리는 역사입니다. <끝>

- 이렇게 <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>을 ‘최고 A급’ 으로 이뤄드리면,
<우리의 일>도 <모든 소원>도 ‘최고 A급’ 으로 이뤄주십니다.
- <하나님>은 ‘전능자’ 시니, 다 해 주십니다.

다만, 우리가 먼저

<하나님의 목적과 뜻>을 ‘최고 A급’ 으로 이뤄드려야,
<우리의 목적>도 ‘최고 A급’ 으로,
‘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’ 으로 이뤄주십니다.

- 그러므로 <자기 소원>만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말고,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소원>을 이뤄드리도록 몸부림치며,
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,

<자기 삶의 소원>을 이뤄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.

- 오늘 말씀 중에 <귀한 말씀>은
 - ▶ <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>은
‘자신의 뜻과 목적’ 을 이루려 함인데,
그 목적을 ‘홀로’ 는 못 이루니
<창조를 받은 자들>이 ‘대상’ 이 되어 이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
 - ▶ 또한, 하나님을 <절대 사랑>하고,
<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>해야
‘하나님의 목적’ 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

- <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>는
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대상’ 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.

하나님이 <아담과 하와>에게
에덴동산도 주시고, 도와주시고, 사랑해주신 목적은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려 함이었는데,

<그 목적>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여,
<하나님의 주권권, 에덴동산>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

<영상2>

- <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법>은
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장기까지 ‘이성 타락’ 을 안 하고,
‘각종 하나님의 법’ 을 지키며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.

만일, <아담과 하와>가 ‘하나님의 말씀’ 을 지켜 행하여
<하나님의 목적>을 이루고 축복받고 잘됐다면,
반드시 ‘에덴동산’ 에서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.

그러나 <이상세계 에덴동산>에서 쫓겨나,
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원시인처럼 본래 살던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.

갖은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,
먹는 것과 입는 것 모두 짐승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.

<하나님의 목적>을 못 이루면, 이렇게 살게 됩니다. <끝>

- <이 시대>에도 성장기에 자기를 중심하고
‘육적인 사랑 세계’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.

지금부터 회개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.

비단, <이성>뿐만 아니라 <하나님 외에 다른 것>을
더 중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사는 자들도
똑같이 ‘타락 행위’를 하는 자들입니다.

- <하나님 외에 다른 것>을 더 좋아하고, <자기>를 중심해 살면,
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‘자기 육적인 이상세계’나 이루게 되고,
결국 ‘허무한 인생살이’로, ‘가치 없는 삶’으로 끝나버립니다.

후에는 행한 대로 <심판>을 받습니다.

<영상3>

- 선생님은 어렸을 때,
성경을 읽으면서 20년 동안 기도하여 ‘성경의 근본’을 깨닫고,
<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비밀>을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.

선생님이 먼저 <하나님의 천 년 역사의 뜻>을 펴며 행하고,
모두에게 ‘복음’을 전해주어 ‘천 년 역사’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.

<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룬 자>는

‘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사명’을 받고 살게 하시고,
‘천 년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’을 주십니다. <끝>

- 오직 <시대 말씀>을 듣고,
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만 사랑하고 중심하며 사는 삶이어야,
 <시대 에덴동산>에 와서 ‘천 년 혼인 잔치’에 참여하게 됩니다.

 <이 같은 삶을 사는 자>와 <살지 않는 자>는
 ‘그 삶’도 ‘받는 것’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

-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,
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>를 ‘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’ 사랑하며,
 <시대 에덴동산 천 년 왕국>에서
 ‘삼위를 모시고 혼인 잔치하며 사는 자들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

-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기 위해
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이 있습니다.
 - ▶ <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>도
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입니다.

 - ▶ <나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꿔주고, 손질해 주는 것>도
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입니다.

 - ▶ <생명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>도,
 <하나님이 보낸 자를 증거하고, 하나님을 믿게 해 주는 것>도
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입니다.

 - ▶ <서로 화목하게 지내고, 미워하지 않고,

형제를 서로 사랑해주며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>도
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입니다.

▶ <생명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주는 것>도
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입니다.

▶ 또한, <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>을 알아주고,
<그 보낸 자의 마음>을 알아주고,
<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>이
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일’입니다.

- 기도해 보면,
<우리>만 ‘원하는 것’ 이 많은 것이 아니고,
<하나님>도 ‘소원하고 원하시는 것들’ 이 많습니다.

이같이 <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>도
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해당되는 일들’입니다.

- <하나님을 사랑하는 것>도 크지만,
<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주는 것>이 그렇게 큼니다.
- <주>를 사랑하는 것도 크지만,
<주가 구원하고 이끌어야 될 자들>을 사랑해주고,
이끌어주고, 도와주는 것도 ‘주를 돕고 사랑하는 일’입니다.
- 예수님은 “<지극히 작은 자 하나>에게 한 것이
곧 ‘내게 한 것’ 이다.”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이와 같이 <형제들에게 해 준 것>도
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해 준 것>으로 생각하니,
모두 서로 돕고, 이끌어주고, 잡아주고, 관리해 줘야 됩니다.

-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,

“<하나님>은 전지전능하셔서
혼자 다 하시기 때문에 ‘도울 것’ 이 없다.

<하나님>은 ‘어려움’ 이 없으시다.” 라고 말합니다.

이는 <하나님과 남남으로 사는 자들의 생각>입니다.

<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살면>,
‘우리가 해 드릴 일들’ 이 너무도 많습니다.

- <큰 자일수록 도울 것이 많다는 것>을 깨닫기 바랍니다.
그만큼 ‘할 일’ 이 많기 때문입니다.

선생님은 이를 깨닫고,
일생 동안 ‘하나님의 일’ 만 해 왔습니다.

<몸>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.
그러니, <여러분들의 몸>을 쓰고 ‘하나님’ 을 돕고 있습니다.

- 선생님이 <하나님의 일>을 도우니까,
하나님은 <선생님의 일>을 도와서 <소원>을 다 이루게 해 주셨고,
<원하는 것>이 있으면 꼭 주셨습니다.

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‘월명동 안’에 너무 많습니다.
구체적으로 볼까요?

<영상4>

- <월명동 하나님의 성전>을 만드는데,
‘땅 12개’, ‘논 30군데’를 받았습니다.

시골이라 땅이 넓지 않으니까,
작은 땅을 하나씩 사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,
하나님이 다 사 주셨습니다.

- <천 년 동안 잘 보관하라고 주신 선물들>을 보면,

<성자바위>, <큰바위얼굴바위>, <성령님 바위>, <낙타바위>,
<부활 돌>, <보아라 바위>, <별봉정 바위>, <밥상 바위>,
<어렸을 때 놀던 말거리 바위>, <약수샘>, <성자 상>,
<예수님 33톤 돌>, <회골 자화상 바위>가 있습니다.
- <야심작 사랑술>, <여호와이레술>,
<지방바위에서 온 생명의 술>, <기도표적소나무>,
<하나님 구상술>, <인대산 왕술>, <별봉정 왕의 의자 소나무>,
<뿌리술>, <Y자 소나무>, <동그래산 어렸을 때 기른 소나무>,
<전망대 대분재 절작술>, <안방마님 소나무>,
<생가 기념관 앞 선생님 표상술>,
<성령의 바람타고 온 술>이 있습니다.

다 말할 수 없어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.

- 그리고 좋아하는 <잔디밭>도 주시고,
<축구장>도 주시고, <수영장>도 주셨습니다.
- 선생이 난 <생가터 기념관>도 선물로 구상해 주셨습니다.
<3.16 휴거기념관>도 주셨습니다.
- 그리고 <문학의 선물>을 주셔서 ‘엄청난 책들’을 썼습니다.

<시>, <잠언>, <하나님의 생명의 말씀>, <노래 1400편>
모두 ‘하나님의 목적’을 이뤄줬다고 주신 것들입니다.

- 그리고 <건강>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
여러분이 기도해주니까 ‘어려운 일’, ‘죽음’에서 살려주셨고,
고통 중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. <끝>
- <하나님과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>은 ‘100가지’도 넘습니다.

선생님이 <하나님의 목적>을 최고로 이뤄드리니,
하나님도 <선생님이 원하는 것들>을 ‘최고 좋은 것’으로 주셨고,
‘최고 좋은 황금천국’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.

- 여러분도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고
열심히 했다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?

모두 <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준 대가로 받은 것들>입니다.

- <그 가치>를 알고 잃지 않으려면,
 - ▶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쓰고,
 - ▶ 매일 기도하고, 전도하고, 생명을 관리하면서
 <하나님이 원하시는 일>을 계속해드리며 살아야 됩니다.

- 여러분도 결국은 <하나님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살아야>,

 ‘인생’ 이 잘되고 형통합니다.

- 오늘 말씀을 듣고도
 <하나님의 목적과 소원>을 안 이뤄드리겠습니까?

 모두 하나님이 해 주셔서,

 ‘하나님의 것’ 을 많이 받고 쓰고 있습니다.

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됩니다.

 - <더 A급으로, 최고로 잘해드리는 것>이 ‘핵심’ 입니다.

- <처음 사랑>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.

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
 <기도함>으로 <처음 사랑>이 확실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- 마지막으로,

 <선생님이 주신 메시지>를 전해주겠습니다.

- 여러분이 <나를 돕는 것>은 <하나님을 돕는 것>인데,
사명 받고 일하는 자들 모두 정말로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.

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할게요.

여러분도 축복을 받도록 ‘그릇’을 준비해야 됩니다.

성장하면,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.

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,

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,

‘새로운 세계’, ‘더 많은 것들’을 얻고 받을 수 있습니다.

선생님도 과정 가운데

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지 다 모를 것입니다.

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,

변치 말고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이루라고

오늘날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.

먹을 것이 없어서 70일을 굶었어도

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.

환난, 풍파,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,

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사랑해 왔던 것입니다.

그와 같이 하는 여러분 모두

늘 하나님이 성령님과 도우시니, 걱정 말고 가기 바랍니다.